

哲學의 世界觀的 基礎

哲學濫重의 概念에 抗하야(五)

(完)

金午星

둘째, 兩者가 各自 自己□□의 傾向을 갖고 잇는데서 오는 것이다. 世界觀은 集團意識으로 言語, 實□, □□, □□等의 傳統力에 依存하는 까닭에 그 集團의 生活樣式이 根本적으로 □□되지 않는 限變化되지 않는다. 勿論 世界觀에도 發展이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生活樣式的 □□에□□하는 것으로 항상 새로운 見解가 거기에 添加될뿐이요. 添加된 見解가 그 世界觀을 根本적으로 變化시키지는 못한다. 그 集團의 生活樣式的 歷史的變化에서만 世界觀은 變化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集團의

生活樣式이 建設기에 잇어는 그 生活이 항상 建設的이며 獨創的임과 같이 世界觀도 進步的, 開放的인 것이나, 그 □熟期 또는 頹落期에 잇어는 그 生活이 守勢的임과 같이 世界觀도 保守的 封建的인 것이 된다. 그리 하여 온갖 새로운 見解가 收容되지 못하며 오직 獨創과 不統一 등이 支配될 뿐이다.

世界觀의 이러한 傾向은 이미 洗鍊된 哲學과는 相容될수없는 한 개의 原始意識밖에 안 될 것이다. 하나 이러한 傾向은 哲學에도 있다. 哲學은 한번 自己體系를 갖자말자. 自己範疇, 自己法則에 支配되고만다.

存在의 概念은 成立되자말자, 存在의 諸範疇가 생겨 이 範疇들이 存在를 構成하는 것 같은 幻想을 일으킨다. 觀念論이 그것이다. 論□는 論理의 諸法則이 온갖 存在를 產出한다는 엄청난 忘斷을 내리운다. 形式論理가 그것이다. 그들은 存在의 概念과 論理의 法則이 한가지로 世界觀에서 □□□것임을 잊어버린다.

그리 하여 範疇와 法則에 새로 잡힌 觀念들은 世界觀이 새로 提供하는 事實을 아주 拒否하는 封建的 態度를 갖게 된다. 여기서 世界觀없는 哲學이 생긴다.

셋째, 哲學이 世界觀을 排斥하는 것은 그□ 世界觀의 分裂에서 오는 傾向이

다. 世界觀의

分裂은 人間의 生活態도의 分裂에서 오는 것으로 그것은 벌써 새로운 世界觀의 口頭와 既成된 世界觀의 頹廢를 意味하는 것이다. 支配層의 이데오로기-는 항상 人類全體를 代表하는것같은 外裝을 必要로 한다.

그런데 世界觀은 直接으로 生活態度에 結付되어 있으므로 世界觀의 分裂, 즉 새로운 世界觀이 對立的 出現은 支配層의 世界觀이 오직 自階級을 爲한 것임을 暴露시키게된다. 여기서 支配層의 이데오로기-즉 既成哲學은 世界觀을 拋棄치 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世界觀없는 哲學은 自己네의 支配權을

維持 하려는 支配的이데오로기-외 캠프라추에 지내지 않는 것이다. 個個의 哲學家가 이것을 意識的으로 敢行함은 決코아니다. 하나 時代意識은 그들에게 그러한 캠프라추를 課題로서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哲學이 今後의 口利을 찾아 할 것인가?를 占칠수있을것이다. 無世界觀의 哲學은 오직 문혀져가는 生活을 維持하려는 캠프라추의 이데오로기-였다. 그러나 生活을 維持하려는것은 벌써 그 生活이 存立性을 喪失한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生活은 維持할것이 아니고 항상 形成되며

建設 되는 것이다. 生活을 반□이 아니고 날로 開拓하며 創造하는것을 이 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生活態度는 그□ 時代의 □熟期나 頹廢期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새로운 時代에의 轉換期에 있어만, 그리고 이때의 現實에서 窮迫에 □한 人間層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所有도 없다. 오직 새로운 生活條件을 開拓하며 獲得하며 創造하므로써만 生存을 營爲할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는 어떤 既成된 範疇나 法則도 □□할 것이 못된다. 웨-그러나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生存의 價値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들에 있어는 世界도 아무 合理性

絶對 性을 갖지 못한다. 웨-그러나 하면 이 世界가 그들에게 窮迫을 갖어 다준 까닭이다. 그들에게 있어는 온갖 條件은 오직 非合理, 矛盾의것이며, 克服하며 止揚해야 할 것이며, 그克服과 止揚을 通하여 다시 새로히 建設하지 안하면 안될 것으로 밖에 보히지 않는다.

이러한 人間層의 生活態度에서 지어지는 世界觀이 發展的이며 開放的일것은 勿論이다. 哲學이 現實에 對한 指導力을 가지려면 이러한 世界觀을 基礎로 하지 안하면 안될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우리는 世界觀이 항상 獨斷과 不統一에 支配됨을 보아 왔다. 그러므로 哲學은 單히 世界觀에

立脚 할뿐 아니고 世界觀을 是正하며 發展시키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 從來의 哲學은 世界觀에서 일어나짐에 不拘하고 그 自體를 完成하자말자. 自己法則에만 充實키 爲하여 그 母體인 世界觀을 無視하였다. 여기서 世界觀은 世界觀대로 獨斷에 흘으고, 哲學은 哲學대로 幻想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제 哲學이 그 墮落된 信用을 快復하고 大衆生活을 指導하는 힘이 되려면 哲學은 世界觀에 充實할뿐아니라 世界觀을 再建하며 創造하지안하면 안될 것이다.

世界觀은 本來 哲學에 依하여 根本적으로 變革된 性質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哲學은 낡은 世界觀을

克服 함 自己의 地盤으로하는 世界觀을 그 極限까지는 發展시킬 可能을 갖고 있는 것이다. 哲學은 世界觀의 錯口을 是正하며 發展시키며 새로운 角度에서 創造하면서 哲學自身을 建設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하여는 哲學은 從來와같이 單히 實在의 探求나 方法의 研磨에만 머저 있어서도 안되고 한 거름 나아가 日常生活에서 生겨지는 온갖 事實을 世界觀의 原理(哲學에 依하여 整頓된)에 依하여 分析하며 評價하지 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는데 서만 哲學은 항상 새로운

素材 를 獲得하는 同時에 오직 一部 智識群에게 收容되는 『講壇的』인 哲學이 참말로 大衆世界에 應用될것이며, 生活의 指導力이 된 것이다. 講壇哲學으로부터 評論的 哲學에 實在探求에서 文化批判에 나아가는데서 哲學은 再建될것이다.

이러한 哲學을 우리는 從來의 世界觀없는 哲學, 또는 內容없는 哲學的 世界觀에 對應하여 世界觀哲學이라 부를 수 있다. 世界觀哲學! 世界觀의 再建을 爲한 哲學만이 今後의 哲學形態일것이다.